

반(反)세계주의자 메리?: 고딕소설 『비사』가 형성하는 미국적 주제

이유경

리어노라 샌세이(Leonora Sansay)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미국 건국 초기의 소설가이다. 1808년에 출판된 샌세이의 대표작 『비사(秘史), 또는 생도맹그의 참혹상』(*Secret History; or, The Horrors of St. Domingo*; 이후 『비사』로 칭함)¹⁾ 언니²⁾ 클라라(Clara)를 따라 아이티 혁명이 진행 중인 생도맹그(Saint-Domingue)로 간 필라델피아 출신 미국 여성 메리(Mary)가 미국에 있는 버 대령(Colonel Burr)에게 자신의 경험을 적어 보낸 편지 26통, 메리와 클라라가 카리브 해의 섬들에서 주고받은 편지 5통, 메리가

1) 그레첸 워텐다이크(Gretchen Woertendyke)가 『로맨스에서 소설로: 비사』("Romance to Novel: A Secret History")에서 밝히듯이, 샌세이의 『비사』는 동로마 제국의 역사학자 프로코피우스(Procopius)가 저술한 『비사』(*Apókryphe Historía*)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영국에서는 긴 18세기(long eighteenth-century)에 주로 등장한 비사 장르의 문학적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255). 따라서 제목을 '비밀스러운 역사,' '비밀 역사,' '숨겨진 역사' 등으로 번역하는 대신 '비사'로 번역하였다. 샌세이는 히스파니올라(Hispaniola) 섬의 서쪽 프랑스령 식민지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인 생도맹그(Saint-Domingue) 대신 세인트 도밍고(St. Doming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스페인령이었던 섬의 동쪽 영토를 지칭하는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사』의 부제는 '세인트 도밍고의 참혹상' 대신 '생도맹그의 참혹상'으로 번역하였다.

2) 샌세이는 『비사』에서 메리와 클라라 중 정확히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밝히지 않지만, 소설 속 메리의 모델이 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실존인물 메리 해슬(Mary Hassal)이 리어노라 샌세이의 이부여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클라라를 언니, 메리를 여동생으로 번역하였다.

버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1통, 이렇게 총 32통의 편지들로 이루어진 서간체 고딕소설이다. 아이티 혁명사를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집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비사』는 미국 건국 초기 문학 연구를 확장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사』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비사』에서 서술자로 등장하는 메리, 클라라 자매 중 클라라에게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한다. 메리는 주요 서술자로 등장함에도 단순히 주인공 클라라를 묘사해주는 관찰자로 간주될 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그러나 메리는 편지 29통을 발송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서술자이다. 메리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비사』를 분석한다면 결코 『비사』에 대한 완전한 비평을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메리를 논의에서 제외한 채로 세계주의(cosmopolitanism) 측면에서 『비사』를 읽은 산 실린 로버츠(Siân Silyn Roberts)의 비평이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메리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순간 『비사』를 “세계주의적 사교성”(cosmopolitan sociability; Silyn Roberts 81)을 예찬하는 텍스트로 보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비사』에서 메리가 보여주는 미국적인 주체는 세계주의적인 주체보다는 식민주의적인 주체에 가깝다.

실린 로버츠는 『고딕 주체: 미국소설 속 개인주의의 변화, 1790-1861』(*Gothic Subjects: Th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ism in American Fiction, 1790-1861*)에서 미국의 고딕 작가들이 존 로크(John Locke)가 제시하고 영국 고딕이 표준적, 자연적인 것으로 만든 “스스로가 가진 자주성, 내면성으로 정의되는 근대적 주체”(modern subject defined by its autonomy and interiority; 3-4), “본질적인, 확립된, 소유권을 가진 자아”(originary, ordered, proprietary self; 19)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업을 한다고 분석한다. 실린 로버츠는 미국의 고딕이 제시하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의 고딕은 주체성을 존재론적인 상태로 간주하기보다, 상호 호혜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회적 독립체들 간 관계의 양태로 이해한다. 이러한 주체성 개념을 통해 구성된 사회 조직의 구성원은 개별화된,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넓은 정보와 감정의 네트워크 속에서 유통되는 다공성의 유통적인 개별자이다. 즉, 이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앞서 존재하는 존재론적으로 확립된 존재들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독립체이다.

American gothic often thinks of subjectivity less as an ontological status and more as a mode of relation among reciprocally implicated social entities. The member of a social body thus constituted are not individuated, property-owning subjects but porous, fluid singularities that circulate through wider networks of information and feeling. These are entities, in other words, that exist in and through their relation to others rather than as ontologically ordered beings that exist prior to social relationships. (19)

“공포를 일깨우거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장르적 의무”(generic obligation to evoke or produce fear; Baldick and Mighall 222; Silyn Roberts 21에서 재인용)를 가지고 있는 고딕소설은 공포의 대상을 “반영하기보다 규정하는”(defines rather than reflects; 21)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자들이 공포의 대상과 반대되는 범주의 것들을 옹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한다. 실린 로버츠에 따르면 샌세이의 『비사』는 “가정성의 영국적 전형”(British model of domesticity; 81)을 “공포스러운 영역”(phobic domain; 81)으로 탈바꿈시키며 이러한 가정성이 의미하는 가부장주의, 정착 그리고 정체(停滯)를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비사』가 긍정하는 주체는 “정체보다 이동을, 자주성보다 전달을 선호하는 체제”(system that favors movement over stasis and transfusion over autonomy; 82)에 알맞은 다공성의 유동적인 주체이다. 목소리가 없던 클라라는 집과 남편으로부터 탈출한 이후부터 문화와 정보의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공간인 집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주위 환경에 대해 엄청난 적응력을 발휘하고 주변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계몽주의가 육성하려 하는 이성적이고 자주적인 주체에 반대되는, 나와 타인의 소유물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회계약의 원칙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클라라가 “사람과 생각이 대서양 둘레로 방해받지 않고 유통되도록 촉진하는 단일한 통합적 사회 유기체의 완벽한 구성원”(the perfect constituent of a single, integrated social organism promoting the unimpeded circulation of people and ideas around the Atlantic circumference; 83)으로 부각되고, 주인공으로서 그녀의 성공은 “토착화”(go native; 83) 능력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실린 로버츠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그녀는 『비사』의 주된 서술자인 메리의 목소리를 논의에서 제외함으로써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한다. 메리의 목소리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사』는 실린 로버츠가 말하는 정도로 타인들과 활발히 관계 맺으며 열려 있는 세계주의적인(cosmopolitan) 주체를 추구하는 텍스트로 읽기 힘들어진다.

실린 로버츠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비사』를 문학적 텍스트로서 진지하게 탐구한 조안 데이안(Joan Dayan)이나 『비사』의 브로드뷰(Broadview)판 서문을 쓴 마이클 J. 드렉슬러(Michael J. Drexler) 등 많은 학자들은 『비사』가 가정 내 숨겨진 폭력을 폭로하며, 가정을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클라라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쓴 편지만을 고려한다면 편지들에서 유일한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클라라의 남편 상 루이(St. Louis)와 그가 가정 내에서 휘두르는 폭력이다. 그녀는 “[결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끔찍한 운명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there is no fate so dreadful to which I would not submit, rather than have [marriage bonds] renewed; 138)라 선언하고, 죽음보다도 남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하며 상 루이와의 가정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정의한다(140). 그녀의 편지에서 ‘공포’(horror)라는 단어는 상 루이의 행동이나 그와의 결혼 생활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그러나 소설의 주된 서술자인 메리가 편지들에서 ‘공포’(horror)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혼과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메리는 프랑스 장군들의 사치와 무능, 크리올(Creole)들의 호색과 질투, 그리고 반란에 성공한 흑인 노예들의 폭력을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린 로버츠의 주장과는 달리, 메리가 『비사』에서 불러일으키는 공포들은 매끄럽고 원활하게 다공성의 유동적인 주체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프랑스 장군들의 탐욕과 무능함이 가져오는 공포는 실린 로버츠의 주장대로 신대륙 세계에서 소유권에 기반한 주체의 개념과, 소유권을 가진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가부장주의 체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규정되는 세계주의적인 영토”(cosmopolitan domain defined by the circulation of its people; Silyn Roberts 81)에서는 소유권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가부장주의 또한 불안정

한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세계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보장한다고 하는 보호와 특권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to pursue the protection and privilege supposedly guaranteed by paternalism is chimerical, even dangerous; Silyn Roberts 81). 단적인 예로, G—— 부인 (Madame G——)은 아이티 혁명이 일어난 이후 “그녀의 자식들을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복직시키리라는 희망”(hope of reinstating her children in their paternal inheritance; 124)을 가지고 생도맹그로 가지만 오히려 흑인들의 노예가 되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 프랑스 장군들의 사치와 탐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토와 재산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가부장주의가 신세계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도맹그는 소유권 개념이 굳건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프랑스의 식민지인 생도맹그는 정치적으로 프랑스의 영토로 여겨지지만, 생도맹그를 다스리러 온 프랑스인들은 생도맹그에서 살아갈 생각이 없다. 유럽 대륙에서 온 이들은 생도맹그를 “정복한 후 승리자들끼리 나눠 가질 장소”(a place to be conquered and divided among the victors; 66)로 보지만, 자신이 소유하는 장소에 정착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떼돈을 번 후, 부의 향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to make a fortune, and return to France with all possible speed, to enjoy it; 66)을 목표로 생도맹그의 자원을 착취하기만 할 뿐, 생도맹그를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는 전혀 보지 않는다. 『비사』는 가장 먼저, 군대의 돈을 횡령하고 크리올 남자들의 아내를 탐내는 프랑스인 장군들의 모습을 공포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군자금을 빼돌려 산해진미를 차려 먹는 르클레르(Le Clerc) 장군은 거리를 구걸하는 병사들로 가득 채워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horror; 66)를 느끼게 한다. 그의 후임 로샹보(Rochambeau) 장군은 크리올 남자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의 죽음을 꾀하는 “괴물”(monster; 84)같은 짓을 하며, 죄 없는 크리올인 페이돈(Feydon)을 마음대로 사형시키는 폭정을 펼쳐서 “고요한 공포”(silent horror; 103)가 생도맹그를 지배하게 한다. 소유권 개념이 확고하지 않은 세계주의적인 영토에서 유럽의 가부장제는 개인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위험에 빠뜨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구대륙의 유럽인들은 고딕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그러나 유럽의 가부장주의를 고딕화(gothicize)한다고 해서 메리가 세계주

의를 긍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크리올들의 호색함, 부도덕함에 대한 공포와 흑인 노예들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는 세계주의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화의 유통에 참여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메리는 크리올들, 흑인 노예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혼혈, 혼종을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크리올들은 언제든지 괴물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방탕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그들의 고딕함은 그들의 혼종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메리는 크리올들의 “쾌락과 사치스러운 안락함의 거처에는 인류가 보고 몹서리쳐야만 하는 악행들이 만연했다”(in this abode of pleasure and luxurious ease vices have reigned at which humanity must shudder; 70)고 하며 크리올 여성의 질투가 불러일으킨 잔혹한 광경을 서술한다. 남편의 눈길을 끈 것으로 생각되는 흑인 소녀의 머리를 잘라 저녁 식사 시간에 내온 이 크리올 여성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악령”(demon; 70), “괴물”(monster; 70)로 칭해지고, 메리는 이처럼 공포스러운 사건이 생도맹그에서 빈번히 일어남을 분명히 하며 크리올 친구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일화들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크리올 남성 또한 크리올 여성과 마찬가지로 괴물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크리올인 클라라의 남편 상 루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클라라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그녀의 얼굴에 질산을 발라버릴 것이라 협박하는 등 끔찍한 일들을 자행한다. 크리올들의 비이성적인 질투는 생도맹그를 고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애비 L. 구드(Abby L. Goode)가 「리어노라 샌세이의 『비사』 속 고딕한 생식력」(“Gothic Fertility in Leonora Sansay’s *Secret History*”)에서 분석하듯이, 메리는 이러한 “크리올들의 타락이 그들의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물”(the degeneracy of the Creoles is a product of their cultural hybridity; 453)임을 시사한다. 메리는 크리올들을 구세계 유럽인의 특성과 흑인 노예들의 특성이 혼종되어 탄생한 존재로 이해한다. 그녀는 크리올들이 “프랑스 숙녀들이 누리도록 되어 있는 자유”(liberty French ladies are supposed to enjoy; 87)를 누리고 “사랑이라 불리는 억제되지 않은 방탕함”(libertinism, called love, [. . .] without restraint; 70)을 즐기으로써 프랑스적인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흑인 노예들로부터 얻은 “느릿느릿한 말투”(drawling accent; 71)로 말을 하며 유럽의 프랑스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질투심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편지에서

메리는 르클레르 부인이 보이어 장군(General Boyer)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르클레르 장군이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소문을 전하며 장군의 질투가 “프랑스인 남편으로서 조금 특이하다”(in a French husband is a little extraordinary; 66)고 평하고, 르클레르 장군의 질투 관련 소문은 “증상모략”(calumny; 66)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메리는 생도맹그의 크리올 사회에 만연한 질투를 유럽의 프랑스인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특성이라 규정하며, 공포를 자아내는 이 질투심이 크리올들의 문화적 혼종성에서 나온다고 암시한다. 생도맹그에서 크리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무시무시한 질투심을 내비치는 이는 바로 흑인 반란군 대장의 아내다. 메리는 이 흑인 여성이 “호랑이만큼이나 질투심이 강하다”(Jealous as a tygress; 92)고 설명하며, 남편의 관심을 끈 백인 여성을 모두 무자비하게 벌한 그녀를 “악마 그 자체”(a very devil; 92), “여성의 모습을 한 분노의 화신”(fury in female form; 92)이라 일컫는다. 메리의 편지에서 질투에 찬 크리올 여성과 흑인 여성은 “악령,” “악마” 등으로 불리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딕화되고, 두 인물의 유사성을 통해 생도맹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혼종이 드러난다.

크리올들의 괴물 같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크리올들의 호색함이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호색함은 인종적 혼종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메리는 백인 크리올 남성이 흑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백인 아내와 딸이 “가난의 모든 참상들”(all the horrors of poverty; 114)을 겪으며 고통받게끔 한 일화를 소개한다. 안정적인 백인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는 타 인종 간의 결합은 무고한 딸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크리올 남성이 흑인 여성을 사랑하게 된 이 일화에서 넌지시 나타나는 인종적 혼종에 대한 메리의 공포는 흑인 노예들이 백인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한 묘사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혁명에 성공한 흑인 노예들이 행하는 폭력은 메리의 편지들에서 대부분 백인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형상화된다. 라파엘 호어만(Raphael Hoermann)이 밝히듯이, 아이티 혁명을 고딕화하는 작업은 혁명이 시작될 당시부터 샌세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해져왔다. 노예제도와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대서양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아이티 혁명에 대한 백인들의 두려움은 “아이티 혁명에 대한 고딕 담론”(Gothic discourse on the Haitian Revolution;

184)을 생성하였고, “대상을 악마로 만드는 고딕적인 수사법”(demonising Gothic rhetoric; 184)은 “노예들의 혁명적인 자기해방과 그들이 그 후 격렬히 싸워 얻은 독립이 카리브 해의 모범적인 식민지 진열장을 무정부 상태와 대량학살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다”(the revolutionary self-emancipation of the slaves and the independence they subsequently fought for so bitterly have plunged the Caribbean’s colonial showcase into a cesspool of anarchy and genocidal violence; 184-85)는 의견을 확산시켜 흑인들의 반란에 대한 공포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비사』 속 메리의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흑인 남성들과 백인 여성들 간 결혼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아이티 혁명이 유발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학살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흑인 남성들이 백인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흑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두 딸을 아버지의 눈앞에서 살해하여도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이 “더 끔찍한 운명”(more dreadful fate; 122)을 당하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딸들이 겪을 뻔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이 운명은 바로 흑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운명임이 후에 G—— 부인과 딸 애들레이드(Adelaide)의 일화에서 밝혀진다. G—— 부인은 딸 애들레이드와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G——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해주겠다는 흑인 대장의 제안에 “그러한 보호보다는 죽음이 더 낫다”(death will be preferable to such protection; 125)고 답하며 죽음을 택한다. 애들레이드도 흑인 대장의 거듭된 청혼을 거절하며 “어머니를 따르게 해달라”(let me follow my mother; 125)고 한다. 애들레이드는 쇠갈고리에 목이 꿰뚫린 채로 매달려 죽는 잔혹한 죽음을 맞지만, 그녀의 일화는 결국 이러한 처참한 죽음보다 흑인 남성과의 결혼이 백인들에게 더 끔찍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점을 보여 준다. 메리는 인종적 혼종에 저항하며 죽은 애들레이드를 “사랑스럽고 결백하며, 불운한 희생자”(lovely, innocent, unfortunate victim; 125)로 칭하며 순결을 지킨 순교자로 묘사하면서, 백인 여성과의 결혼을 요구하는 흑인은 “괴물”(monster; 125)로 명명함으로써 결혼 대신 죽음을 택한 애들레이드의 결정을 지지한다. 메리는 초기의 편지들에서는 노예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그들이 “잔혹한 종속의 상태”(state of brutal subjection; 76)에서 벗어나 “잔인하게도 빼앗겼던 그들의 권리”(rights of which they had been cruelly deprived;

77)를 되찾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하지만,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흑인과 백인 사이 인종적 혼종을 그 무엇보다도 큰 공포로 규정하며 노예혁명을 고딕화한다.

이처럼 메리의 편지에서는 문화적, 인종적 혼종의 가능성이 메리에게 가장 큰 공포로 정의되어 ‘생도맹그의 참혹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녀는 “대서양 주위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생각들의 원활한 유통”(unimpeded circulation of people and ideas around the Atlantic circumference; Silyn Roberts 83)을 권장하는 대신 미국인과 구별되는 유럽인, 크리올인, 흑인들의 모습을 고딕적인 언어를 통해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들과 문화적, 인종적 혼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메리가 생도맹그와 카리브 해의 섬들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린 로버츠는 『비사』에서 샌세이가 “메리와 클라라를 국가, 출신, 또는 가정으로 정의하기보다 그들이 접근을 허용받은 문화적 정보로 정의한다”(defining Mary and Clara less by nation, origin, or household and more by the cultural information to which they are granted access; 80)고 주장하지만, 메리 스스로는 자신과 클라라가 미국인임을, 미국은 카리브 해의 섬들과 다르다는 점을 필요할 때마다 강조한다. 편지들에서 메리는 자신과 클라라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한다. 르클레르 부인이 그랬듯이, 사람들은 메리와 클라라가 “미국인 숙녀”(American ladies; 64)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흥미를 보이고 그녀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국적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큰 도움을 주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메리는 “여기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들은 영국인들에 의해 압류되고 약탈당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이니 어쩌면 통과할 수 있을지도요”(Every vessel that sails from hence is seized and plundered by the English; but, as we are Americans, perhaps we may pass; 105)라며 희망을 내비친다. 자매는 자신들이 미국인임을 밝힐 새도 없이 “프랑스 소유”(French property; 106)의 배를 탄 프랑스인들로 취급되어 배를 빼앗기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배를 타고 도착한 바라코아(Baracoa)에서는 미국인인 덕분에 총독부인에게 환대를 받는다. 스페인령 식민지 출신인 총독부인은 “일찍부터 있어온 편견”(early prejudice; 108) 때문에 프랑스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다행히 클라라는 미

국인”(Fortunately Clara is an American; 108)이고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보장하는 “색다름의 매력”(charm of novelty; 108)을 가지고 있기에 총독부인의 사랑을 받는다. 메리는 유럽인, 크리올인, 흑인과 구별되는 미국인의 “색다름”을 명백하게 긍정적으로 그리며, 이 색다른 매력이 유럽인, 크리올인, 흑인들의 부정적인 특성과 섞이는 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클라라가 “세계주의적인 정보와 감정의 순환 속으로의 자아 편입”(incorporation of the self into a cosmopolitan circuit of information and feeling; Silyn Roberts 25)을 행하며 “세계주의적 사교성”을 보여주고 이를 추구해야 할 모델로 제시하는 반면, 메리는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미국성(Americanness)을 추구하며 세계주의적인 정보와 감정의 순환을 제지하려 한다고 『비사』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정리해버릴 수는 없다.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이를 통해 “기발한 조합”(ingenious combination; 152)을 만들어내는 클라라의 능력, 실린 로버츠의 해석에 따르면, 클라라를 “세계주의적인 교환의 횡문화적 체제로서의 대서양 사회관계”(circum-Atlantic social relations as a transcultural system of cosmopolitan exchange; 80)에 알맞은 주체로 만들어주는 이 능력을 칭찬하는 이는 다름 아닌 메리이다. 메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클라라의 능력을 길게 설명한다.

어떤 주제가 그녀의 관심을 끌면, 그녀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직관적으로 포착하고 일종의 정신적 마법을 통해 꽤나 똑똑한 사람들도 지루한 추론과 숙고의 과정 끝에 도달할 지점에 즉각적으로 당도합니다. 기록보다 확실한 그녀의 기억은 발생한 모든 일들을 영속시키지요. 그녀는 웃고 노는 동안 지식을 축적하고, 친구들로부터 그들의 응용의 산물을 훔쳐 학습의 피로 없이 그들이 가진 지성의 보물을 소유하게 된 그녀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자재로 기발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생산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친절함과 애정에 힘입어 친구들의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녀의 천재성이 과거를 살피거나 환상적이고 새로운 미래의 계획 사이를 거닐 때의 차분하고 승고한 사색의 순간보다 그녀와의 교제가 더 즐거운 순간은 없습니다.

Whatever subject may engage her attention, she seizes intuitively on what is true, and by a sort of mental magic, arrives instantaneously

at the point where, even very good heads, only meet her after a tedious process of reasoning and reflection. Her memory, surer than records, perpetuates every occurrence. She accumulates knowledge while she laughs and plays: she steals from her friends the fruits of their application, and thus becoming possessed of their intellectual treasure, without the fatigue of study, she surprises them with ingenious combinations of their own materials, and with results of which they did not dream, Her heart keeps a faithful account, not only of every word but of every look, of every movement of her friends, prompted by kindness and affection, and never is her society more delightful than in those moments of calm and sublime meditation, when her genius surveys the past, or wanders through a fanciful and novel arrangement of the future. (152-53)

메리는 클라라가 크리올들에게 동화되어 방종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프랑스에서 온 로상보 장군이나 스페인 사람인 돈 알론조(Don Alonzo)를 가까이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지만, 그녀가 “친구들”에게서 “지성의 보물”을 훔쳐 “기발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메리는 미국성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정보라면 이를 도용, 전용(轉用)하여 미국인의 특성 속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하고, 스스로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 메리는 미국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성으로 평화로움을 꼽으며, 거의 강박적인 정도로 생도맹그의 위협과 대비되는 미국의 평화로움을 강조한다. 그녀의 편지에서 미국은 항상 “평화로운 안보”(peaceful security; 92, 121), “평화로운 은거처”(peaceful retreats; 76)를 제공하는 “행복한 나라”(happy country; 92)로 묘사된다. 그러나 바라코아에서 “평화로운 잊혀짐”(peaceful obscurity; 107)을 경험한 메리는 이후 미국을 묘사하는 단어에 슬쩍 “평화로운 잊혀짐”을 추가한다. “평화로운 잊혀짐” 속에서 살아가는 바라코아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메리는 이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경멸할 수는 없는”(if I do not envy, I cannot despise; 107)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메리는 바라코아에서 맞볼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잊혀짐의 상태를 상당히 부러워하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녀는 바라코아를 떠난 후에도 “바라코아의 평화로운 잊혀짐”(peaceful obscurity of Barracoa; 123)을 언급하더니 어느 순간 이 표현을 필라델피아

를 묘사할 때 써버린다. 그녀는 상 루이에게서 도망친 클라라에게 “필라델피아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고, 거기서 우리는 언니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으로 가득하게 한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로운 잊혀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Means shall be found to return to Philadelphia, where, in *peaceful obscurity* we may live, free from the cares which have tormented you, and filled myself with anxiety; 137; 필자 강조)라며 편지를 쓴다. 메리를 통해 ‘평화로운 잊혀짐’은 어느 순간부터 쿠바의 바라코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닌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묘사하는 단어가 되어버린다.

메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인과 유럽인, 크리올인, 흑인들 사이 인종적 혼종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아니다. 유럽인, 크리올인,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흠모할 만한 장점이 있다면, 메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미국성과 융합시킨다. 문화적, 인종적 혼종의 상황에서 메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혼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미국성에 섞여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다른 이들도 자신과 클라라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의 보물”을 몰래 훔쳐 자신들의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메리가 바라코아의 장점을 전용하여 이를 미국적인 특성으로 만들었듯이, 교류가 일어날 때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가 미국성을 교묘히 전용하여 자신들의 특성이라 내세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메리에게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유동적인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메리는 사람과 문화가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성이 흐려지는 것을 공포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리가 채택하는 형식이 바로 생도맹그 및 다른 서인도 제도 섬들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그녀는 서인도 제도에서 미국으로 보낼 정보들을 신중히 점검하고, 애런 버(Aaron Burr)가 미국에서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들은 『비사』에서 빼놓는 방식으로 미국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메리가 『비사』를 통해 만들어내는 미국적인 주체는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고, 정보와 감정의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일정 정도 다공성과 유동성을 보이는 주체이지만, 이 다공성과 유동성은 상황에 따라 통제된다. 메리는 정보와 감정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면서도 주위로부터 철저히 긍정적인 요소들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성’은 외부와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메리는 당시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던 애런 버에게 편지를 보내며 미국이 서인도 제도 섬들의 어떤 면모들을 공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모범 삼아 참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녀는 고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프랑스인들의 사치와 그들이 가져오는 구세계적 가부장주의, 크리올들의 문화적 혼종성, 그리고 혁명에 성공한 흑인 노예들이 가져오는 인종적 혼종성의 가능성 등을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테시 P. 리우(Tessie P. Liu)가 지적하듯이 이와 반대되는 “안정적인, 대륙적인 미국의 백인 정체성”(stable, continental American white identity; 406)을 수호하도록 한다. 동시에 그녀는 서인도 제도의 사람들에게서 취할 만한 점들, 프랑스계 크리올들이 보여주는 “불운을 물리치는 프랑스인들의 기질 속 탄성”(elasticity in the French character which repels misfortune; 61), “프랑스인의 생기”(French vivacity; 71), 억압에 맞서 흑인들이 보여주는 힘과 용기 등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이러한 특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메리가 편지들에서 바라코아를 정의하는 “평화로운 잊혀짐”을 필라델피아의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듯이, “탄성,” “생기,” 힘 등 서인도 제도 사람들의 긍정적인 속성들도 미국적인 특성으로 재규정될 수 있다. 실린 로버츠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보물”을 “훔치는”(steals; 152) 클라라의 모습을 두고 “그녀는 우리가 이전에 맛닥뜨렸던, ‘떼돈을 번 후, 부를 향유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프랑스로 돌아갈’ 작정을 한 프랑스 병사들에게서 본 식민주의적 약탈자들 같은 인물과 비슷해진다”(She comes to resemble the figure of the colonial plunderer we earlier encountered in the French soldiers, who intend “to make a fortune, and return to France with all possible speed”; 83)고 하면서도 이러한 유사성이 “불법적인 식민주의적 약탈품이 아니라 정보를 캐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인류의 척도”(measure of humanity defined by its ability to mine information rather than illegitimate colonial spoils; 83)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실린 로버츠는 “불법적인 식민주의적 약탈품”과 클라라와 메리가 식민지에서 채굴하는 “정보”를 서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규정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정보는 원활한 순환 속에서 공평하게 유통된다는 점에서 “약탈품”과 구분되지만, 메리의 교묘한 검열행위는 이 정보의 유통이 공평하게 이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사』에서 애런 버가 메리에게 보내는 편지는 단 한 편도 등장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애런 버의 편지가 메리에게 도착하지 않는다. 메리는 애런이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이후 편지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해 편지 세 통이 한꺼번에 메리에게 도착하는 일이 발생한다(79). 그러나 애런 버의 편지가 메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로도 메리는 『비사』에 애런 버의 편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사』에는 메리가 미국 부대통령 애런 버에게 전달하는 서인도 제도의 상황에 대한 정보만 등장하고, 애런 버가 메리에게 전달하는 미국의 상황은 검열된다. 그의 편지에 답장하는 내용을 쓰더라도, 이는 “공적인 문제나, 클라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메리가] 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무관심의 외관 아래에 숨겨버린다”(in relating public affairs, or those of Clara, I [Mary] forget my own, or conceal them under this appearance of neglect; 89)는, 메리가 매우 비밀스러운 사람이라는 버의 지적만을 드러낼 뿐이다. 메리는 이 지적조차 “실은, 내 삶에는 아무런 모험도 없어요”(in truth, I have no adventures; 89)라는 말로 교묘히 피해버린다. 메리는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검열하고, 남들에게서 수집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남에게 밝히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인물이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흡수하지만 자신이 가진 정보는 방출하지 않으려 하는 메리의 특성은 미국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애런 버의 편지를 『비사』에 신지 않는 행위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메리가 L—— 부인(madame L——)과 자메이카에서 지낼 때 일어난 한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메리가 L—— 부인과 같이 지내는 집에 스페인 해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메리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스페인 병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척, 영어를 못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다음날, 스페인어로 메리가 예쁘지 않다고 말한 한 스페인 병사가 메리가 스페인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내비치자, 그제서야 메리는 스페인어로 대답하며 자신이 모든 대화를 알아들었음을 밝힌다. 스페인 병사는 메리의 대답을 듣고 “겁에 질린”(petrified; 133) 표정을 하고, 그를 성공적으로 골탕 먹임으로써 메리는 스페인 대령의 호감을 얻는다. 이처럼 자신만 아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서 정보들을 얻은 후, 이 정보들을 잘 조율함으로써 메리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

향을 통제한다. 정보를 제한하고 검열하는 메리의 행위는 세계주의적인 순환(cosmopolitan circuit) 속에서 정보의 유통이 쌍방향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고딕소설들이 땅에 대한 소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를 바탕으로 주체를 규정하는 영국의 개인주의와 사회계약론이 디아스포라(diaspora) 상태에 놓여 있는 신대륙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실린 로버츠의 분석은 유효하다. 미국 고딕이 형성하는 주체가 영국 고딕이 만들어내는 주체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정당한 지적이다. 실린 로버츠의 해석대로, 샌세이의 『비사』는 영국 주체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가정을 배척해야 할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섬들 사이로 유통되는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는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나 『비사』가 크리올화, 토착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며 열린 자세로 주위 환경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세계주의적 주체를 보여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린 로버츠는 『비사』가 미국문학 특유의 세계주의적인, 초국가적인 주체를 형성해낸다고 읽으려 하지만, 『비사』의 주된 서술자인 메리의 편지에서는 이러한 세계주의적, 초국가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메리의 편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토착화를 거부하며 매 순간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문화적, 인종적 혼종을 일삼는 행위이다. 메리는 “세계주의적 사교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와 감정의 유통, 순환 과정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자신이 가진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막는다. 그녀는 획득한 정보를 도용, 전용하여 미국적 백인 정체성을 윤색하고 확장하려는 동시에 이러한 “미국적” “백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이들을 엄격히 배제한다. 결국, 샌세이의 『비사』에서 드러나는 미국적 주체는 세계주의적인 주체이기보다, 오히려 식민주의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비사』 속 미국은 결코 세계적인 공간이 아니다. 메리와 클라라가 텍스트의 끝에서 향하는 곳인 “평화로운” 필라델피아는 미국 백인 여성, 혹은 미국인들에게 감화된 백인 크리올 여성의 입국만을 허용하는 곳이다.

참고문헌

- Goode, Abby L. "Gothic Fertility in Leonora Sansay's Secret History." *Early American Literature* 50.2 (2015): 449-73. *Project Muse*. Web. 27 June 2019.
- Hoermann, Raphael. "'A Very Hell of Horrors'?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Early Transatlantic Haitian Gothic." *Slavery & Abolition: A Journal of Slave and Post-Slave Studies* 37.1 (2016): 183-205. *Taylor & Francis Online*. Web. 27 June 2019.
- Liu, Tessie P. "The Secret beyond White Patriarchal Power: Race, Gender, and Freedom in the Last Days of Colonial Saint-Domingue." *French Historical Studies* 33.3 (2010): 387-416.
- Sansay, Leonora. *Secret History; or, The Horrors of St. Domingo*. Secret History; or, The Horrors of St. Domingo and Laura. Ed. Michael J. Drexler. Toronto: Broadview, 2008. 59-154.
- Silyn Roberts, Siân. *Gothic Subjects: Th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ism in American Fiction, 1790-1861*.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14.
- Woertendyke, Gretchen. "Romance to Novel: A Secret History." *Narrative* 17.2 (2009): 255-73.

ABSTRACT

Mary the Anti-Cosmopolitan? Construction of the American Subject in the Gothic Novel *Secret History*

Youkyung Lee

This paper examines how Leonora Sansay's epistolary gothic novel *Secret History; or, The Horrors of St. Domingo* constructs the American subject as a distinctively colonialist subject through its main narrator Mary. Al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ead *Secret History* as a text that celebrates cosmopolitanism, primarily focusing on Mary's sister Clara, this reading overlooks the fact that Mary, who is the writer of 29-out-of-32 letters in *Secret History*, shapes her Americanness through a colonialist perspective. Mary gothicizes not only marriage and domesticity of Europe but also miscegenation and hybridism of the West Indies, emphasizing that Clara and herself as white Americans are remarkably different from Europeans or Creoles. She rigidly defends her Americanness against the horrifying hybridization and corruption witnessed in the West Indies. At times, however, Mary appropriates the positive properties of the West Indies and fuses them with her definition of the Americanness. The American subject that she establishes through her carefully regulated letters is a subject that is thoroughly guarded against contamination, yet occasionally porous, able to absorb beneficial elements of other cultures. Mary's frequent concealment and censorship of information expose the fact that information cannot be smoothly circulated and equally distributed among participants, and

that an ideal cosmopolitan circuit is illusory. The American subject that Mary represents in *Secret History* is thus far from being cosmopolitan and closer to being colonialist.

Key Words Leonora Sansay; *Secret History*; gothic; Americanness; colonialism; cosmopolitanism